

인산 세계시장 구조개편 홍역!

사모포스, Atofina 사업 인수 ... 일본은 난연제 대체시장 확대

독일 Hoechst에서 분리된 네덜란드의 사모포스가 Atofina의 염화인, 무수인산 사업을 인수하는 등 세계 인산화합물 시장에서 재편이 이어지고 있다.

Rhodia 생산제품은 말레이시아, 사모포스는 중국에서 인산 및 인산염 제조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인산 수입시장은 금속표면처리 등 범용제품이 중심이나 앞으로는 2차 제품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수입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생산기업들은 고부가가치제품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EL인산은 전자 전용의 고순도 인산으로 불순물을 ppb 수준까지 제거해 반도체 에칭용으로 사용되고, 차아인산소다는 컴퓨터용 하드디스크의 알루미늄 기판의 무전해도금에서 니켈 환원제로 사용된다. EL 인산은 2001년 IT 불황으로 어려웠으나 재고 조정을 끝내고 2002년 하반기부터는 활황으로 반전됐다.

日本化學은 반도체 제조장치용 특수 유리용으로 5N(5·9)의 고순도 인산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도 활발하다. 난연제용으로도 기대되는 분야이며 다이옥신 발생이 의심되는 브롬계 난연제 대체인 인산에스테르계 난연제가 시장을 넓히고 있다.

제1세대인 TPP, TCC 등은 옥시염화인 시장으로 최근 가수분해성을 개선한 축합타입 인산에스테르계가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적인도 휴대전화 중계안테나 배선 등이 주 용도였으나 소량 첨가로도 난연효과가 발휘돼 최근 프린트 배선 기판과 커넥터용 수요증가가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적인 생산기업인 燐化學은 생산능력을 100% 확대했다.

<Chemical Journal 2003/09/03>